

역경원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 취임... 역경 사업 재정비 목소리 높아

역경보살로 불리는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의 역경원장 해임 이후 2년 여간 표류하던 동국역경원장에 최근 무비 스님이 취임했다. 무비 스님 취임을 계기로 중단 안팎에서는 중단 역경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역경사업은 포교·도제양성과 함께 조계종단의 3대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사업이 지체와 서행을 거듭해온 까닭에는 역경원의 위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동국역경원은 종단 3대사업 중 하나를 추진하는 기관임에도 조계종도, 동국대 소속도 아닌 애매모호한 기구이다.

역경을 요구한 관계자는 “동국역경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려면 단연 정체성 문제”라며 “역경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역경원은 동국대 산하 기관으로 속해 있다. 최근에는 불교학술원으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조계종도 동국대 기관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경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호하다. 조계종 총무원에 소속되면, 학교기관으로 완벽히 자리 잡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경원의 정체성 문제는 소요에 산 확보 및 직원의 신분보장에 따른 사기 문제와도 직결된다. 2007년 동국역경원의 수입은 국고보조금 4억



4월 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된 무비 스님의 동국역경원장 교복식에서 동국대 이사장 정연 스님(왼쪽)이 무비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원, 동국대에서 2억원, 역경원후원회 1억원, 조계종 교육원 2000만원, 재단법인동국역경사업진흥회 2000만원, 불교서적 출판 수입 1억4000만원 등 8억8000만원이다.

2008년 월운 스님의 역경원장 해임 당시 역경원장직이 계약직이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2년 여가 지난 지금도 역경원 직원 7명 중 1명만 동국대 교직원일 뿐, 나머지는 비정규직 계약직이다. 역경원은 단지 기관으로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무비 스님 취임 전 동국역경원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원장인 박인성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가 맡아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이 로버트 버셀 UCLA교수로 비상근직임을

감안할 때 박 교수는 불교학술원의 최고 행정책임자이다. 동국역경원의 상위기관인 불교학술원 부원장이 역경원장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여 동안 역경원이 표류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박인성 교수는 “역경원장 취임 이후 새로운 역경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월운 스님을 쫓아낸 사람으로 오해 받아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며 “역경원에 번역부도 만들었으나 학교 측이 인력충원, 재정지원 등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운 스님 해임 이후 동국대가 역경원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반증하는 발언이다.

이러 박인성 교수는 “역경원의 역경 인력에 재가불교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다양하게 개방돼야 한다. 범어·빨리본 경전 번역 사업과 어린이를 위한 역경사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임역경원장 무비 스님은 “당분간 <한글대장경> 개역 등 역경원이 기존에 진행해 온 사업을 충실히 하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스님은 “역경사업에 종단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는 일단 성과를 보인 후에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의 취임으로 2년 여 표류하던 역경원이 새롭게 도약할 계기를 맞았다. 역경원수생 제1기 출신인 스님은 취임사에서 “역경원으로 환기분처했다”고 말했다를 만큼 역경원에 강한 향수와 애정을 갖고 있다.

前 역경원장 월운 스님은 역경원의 비전을 묻는 질문에 <선문연승>의 계승을 인용해 “피를 토하면서 울어봐야 할 곳이 없으니 차라리 입을 닫고 남은 봄을 보내는 것만 같지 못하리라(啼得血流無用處 不如緘口過殘春)”고 말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이사장 정연 스님이 3월 4일 역경원을 둘러보고는 사무실이 초라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 이사장스님이 ‘이래서는 안된다’며 ‘얼말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동섭·이상연 기자



한·미 친선교류협회 미안마의 날 맞아 물축제 봉행 4월 16일 미안마의 날을 맞아 한국-미안마 친선교류협회(회장 목탁)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안마의 날 선포 10주년 기념식 및 미안마 전통의식인 물축제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우 모르른 주한 미안마 대사관을 비롯한 한국주재 외교관, 친선협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재완 기자

사용법 몰라 향로 뒤집어 전시 도교국립博 소장 금산사 향로 환수해야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금산사 향로는 박물관 측이 사용법도 몰라 뒤집어 전시되고 있었다. 해외 반출된 우리 문화재로서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금산사 향로 (사진은 위 아래가 바로 접힌 모습).

문화재제자리찾기(의장 김의정, 조계종 신도회장은 4

월 15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이 단체의 사무처장 해문 스님은 “향로는 ‘금산사 대전 미륵전(金山寺大殿 彌勒殿)’이란 명문이 있어 ‘금산사 미륵전’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보관 중인 금산사 향로는 일반적인 형태로, 현재 목재 부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 스님은 “금산사 향로가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상하가 뒤집혀 전시됐던 것으로 보아 일본이 약탈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뒤집혀 있던 향로는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지적으로 지금은 바로 놓여 있다.

해문 스님은 “금산사에 봉안됐던 향로가 약탈돼 일본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다는 것은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환수 이유에 대해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의장 김의정, 조계종 신도회장은)는 “향로는 황수영 박사가 1963년 집필한 <고려 청동은입사 향로의 연구>에는 ‘(금산사) 향로가 일본의 약탈로 일본에 간 뒤 법흥사에 헌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문 스님은 “금산사 측과 협의해 구체적인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제자리찾기는 금산사 향로 외에도 문화재청이 미과약했던 조선왕실의제 5종 13책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보관 중인 조선시대 장군의 투구와 갑옷, 왕세자가 쓰는 의선관의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은정 기자

관람료 소송 취하 합의 자재암·동두천발전연합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3년 여 소송을 이어 온 소요산 자재암과 지역단체가 관람료 징수에 대한 합의 후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자재암 주지 해립 스님(중앙총회 의원)은 4월 12일 “동두천발전연합과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징수 여부는 조계종 문화재관람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동두천발전연합은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자재암 소유의 소요산에 동두천시가 공익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수행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의정부 지방법원은 자재암을 대상으로 서정호 외 21명이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서씨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1인당 1000원씩 2만 2000원의 관람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조계종 총무원은 “재판부가 문화재관람료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는 동두천 주민 1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패소 판결이 나는 등 지역사회와 송사가 끊이지 않아왔다.

조동섭 기자

축비와 목탁

선학과·인도철학과 살려라

최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의 제1차 회의에서는 선(禪) 관련 교육내용 개편을 포함한 중단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편(안) 등이 논의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계종 전국 9개 지방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은 동국대 선학과·중앙승가대 수준으로 한글화·현대화·표준화 된다.

하지만 정작 벤치마킹 대상이 된 선학과에서는 커리큘럼 및 학부제 전환 등으로 불만이 많다. 이

같은 불만은 지난 3월 동국대 선학과 교수·강사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최근 몇 년간 선학과 커리큘럼이 교양대학에서나 배울 법한 커리큘럼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교강사회의에서는 오영교 총장의 개혁드라이브로 불교대학 내 학과가 없어진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한 교수는 “불교대학에 불교학 전공만 남고 선학과와 인도철학과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는 “학과의 커리큘럼이 과

수인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다”고 말해 학사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국대는 단과대학별 학부제 전환을 강행하다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학과·학부제 전환을 각 단과대학에 맡겼다. 사회과학대 등은 학과제로 남았지만 불교대학의 경우 대다수 교수가 학과제 폐지·학부제 전환에 찬성했던 까닭이었다.

선학과와 인도철학과는 국내 유일의 학과이다. 현대화된 승가교

육을 위해 만들어졌던 승가학과가 전신인 선학과를 비롯해 인도철학과도 회귀학과이다. 인도철학과에서 유학했던 한 외국인은 “일본 동경대로 가려다 비행기를 잘못타 동국대에 왔다”고 우스개를 하기도 했다.

두 학과의 회소성을 떠나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조계종립 동국대에서 선학과와 인도철학과 의 위상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선학과와 인도철학과를 살려야 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能仁香堂
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자연만을 모은 순수한 향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능인향당

www.nihwa.com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 3663-6777

능인향당은 국내 일체의 로얄티를 주지 않습니다. 능인향당의 침향은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에 로얄티를 주고 수입하여 판매하는 침향과는 다른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향입니다.

능인침향수 침향적정 침향 침향천관 침향천관진 침향천관수 관공수향 상적 무진 세심 능인 미륵 선혜 음관 능인침향 적정 라벤더 로즈마리